

2009학년도 3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언어 영역 •

정답

1	4	2	3	3	1	4	5	5	4
6	3	7	4	8	4	9	5	10	2
11	1	12	5	13	2	14	1	15	5
16	3	17	2	18	2	19	4	20	4
21	5	22	3	23	3	24	3	25	5
26	1	27	2	28	2	29	5	30	2
31	4	32	4	33	2	34	3	35	5
36	4	37	2	38	1	39	5	40	4
41	1	42	1	43	3	44	4	45	3
46	3	47	1	48	1	49	2	50	2

해설

[1] 이제 여러분은 한 편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발명왕 에디슨을 모르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에디슨은 그 이름만큼이나 유명한 일화도 많이 가지고 있지요. 이번 시간에는 그 중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에디슨이 예순일곱 살 때 그의 실험실에서 큰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불길이 얼마나 거셌는지 그날 밤의 화재는 에디슨이 일생 동안 이루어 놓은 결과물들을 한 순간에 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불길이 실험실을 집어 삼키며 견잡을 수 없이 타오르는 그 때 에디슨은 결코 울부짖지 않았습니

다. 다음날 아침, 패허가 된 실험실을 둘러보며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군요.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불은 내 모든 실수를 태워버린 셈이야. 하나니,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시 에디슨이 화재로 입은 피해액은 무려 200만 달러가 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엄청난 재난을 겪은 지 3주 후, 에디슨은 세계 최초의 축음기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좌절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재난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에디슨도 자신의 재난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명왕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1. [출제의도]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가 주는 교훈을 파악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에디슨에 관한 일화를 들려준 다음,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묻는 문제이다. 이야기를 통해 남다른 사고를 지닌 에디슨의 면모가 잘 드러난다. 자신에게 닥친 불행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던 에디슨의 모습으로부터 ‘불행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2] 이번에는 대화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남 : 오선주, 생일이 며칠이었지?

여 : 어쩐, 넌 친구라는 애가..... 해마다 생일을 꼭 내 입으로 말해 줘야 하니? 10월 29일! 작년엔 수요일이었으니 올해는 목요일이야.

남 : 어? 달력을 보지 않고 어떻게 요일까지 알 수가 있어?

여 : 애는! 1년 365일을 7로 나누면 1이 남는다는 거, 몰라?

남 : 그게 무슨 말이야? 7로 나뉘? 1이 남는다고? 그게 요일이나 날짜와 무슨 상관이지?

여 : (뻘까듯이) 응, 그건 말이야, 1주일이 7일이라는 걸 생각해 봐. 1년 365일을 7로 나누면 52주 하고도 하루가 남잖아.

남 : 그래서?

여 : 뭐가 그래서야? 생각 좀 하셔. 이 말은 어떤 날짜의 요일이 일 년 후에는 하루씩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라구. 그러니까 작년 내 생일 10월 29일은 수요일이었는데, 올해 내 생일은 목요일이 된다는 거지.

남 : 아하, 그렇구나. 요일 계산은 생각보다 간단한 일인 걸!

여 : 그래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

남 : 뭔데?

여 : 사실, 1년은 365일이 아니라 365일 하고도 여섯 시간 가량 남는다고 해. 그래서 4년에 한 번씩 윤년이라고 해서 2월이 28일이 아니라 29일까지 있잖아. 작년 2008년이 바로 윤년이었어. 이 정도는 알지?

남 : 이젠 애가 아주 나를 바보 취급하네. 윤년인 해는 날짜가 366일이니까 7로 나누면 나머지가 2라서, 요일이 하루가 아니라 이틀이 달라진다는 거 아냐?

여 : 아야, 제법인걸! 하나를 가르쳐 줬더니 둘을 아내. 그렇다면, 이 문제 한 번 맞춰 봐. 올해 내 생일인 10월 29일은 목요일이야. 그렇다면 5년 뒤인 2014년 내 생일은 무슨 요일일까?

2. [출제의도]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정보에 대해 이해 후, 제시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여학생은 남학생에게 특정 날짜의 요일이 해마다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그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다. 365일을 7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 되기 때문에 어떤 날짜든지 일 년이 지나면 반드시 요일이 하루씩 변하게 된다는 것이다. 올해 생일이 목요일일 때 5년 뒤의 생일은 무슨 요일일지 묻는 질문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은 윤년이 한 번 끼 있다는 것이다. 윤년이 끼 있을을 고려하면 올해보다 5년 뒤에 10월 29일이 무슨 요일일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요일이 6번 바뀌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5년 뒤의 10월 29일은 수요일이다.

[3] 이번에는 방송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추운 겨울이 되면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네, 바로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귀여운 손난로입니다. 최근 손난로는 그 종류가 더욱 다양해졌는데, 오늘은 이 중 고체형 난로와 액체형 난로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체형 난로는 고온 칫가루를 이용한 난로입니다. 이 난로는 보통 공기가 통하는 종이 주머니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칫가루 외에도 염화나트륨 등이 섞여 있습니다. 주머니를 잡고 흔들면 그 속에 들어 있는 고온 칫가루가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해 산화 작용을 일으키면서 열을 발생시킵니다. 이 때

주머니 안에 같이 들어 있는 염화나트륨이 산화 작용을 더욱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산화된 칫가루는 다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고체형 난로는 대부분 일회용입니다.

액체형 난로는 아세트산나트륨을 이용한 난로입니다. 아세트산나트륨은 무색의 결정체를 가진 고체인데, 열을 가하면 액체 상태로 바뀝니다. 하지만 이 용액에 자국이 가해지면 다시 고체로 굳어지면서 열을 방출하게 되지요. 액체형 손난로 안에 들어 있는 작은 칫조각은 바로 이런 자극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완전 발열이 되어 고체로 변한 손난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굳어진 손난로를 뜨거운 물에 넣어 보십시오. 그러면 굳었던 고체 액체로 변하면서 손난로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3. [출제의도] 방송을 듣고 그 세부적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고체형 난로와 액체형 난로의 특징을 정확히 파악한 후, 그 내용이 선택지에 적절하게 구현되었는지 살펴 봐야 한다. 고체형 난로는 칫가루가 산소와 결합하여 산화 작용을 하면서 열을 낸다. 이에 비해 액체형 난로는 아세트산나트륨 용액이 외부 충격에 의해 고체로 굳어지면서 열을 발생하는 원리로 만들어졌다. 고체형 난로는 일회용이지만 액체형 난로는 반복해서 쓸 수 있다는 점도 다르다

[오답풀이] ② 고체형 난로 안에 들어있는 염화나트륨은 칫가루가 산소와 만나 산화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촉진시킨다. ③ 고체형 난로는 대부분 일회용이지만, 액체형 난로는 뜨거운 물에 담그면 고체화된 아세트산나트륨이 액체로 변하면서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액체형 난로 안의 작은 칫조각은 아세트산나트륨에 자극을 주는 역할을 한다. ⑤ 액체형 난로는 아세트산나트륨 용액이 고체로 변하면서 열을 내게 된다.

[4-5] 이번에는 선생님과 학생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학생 : 선생님, 회의를 할 때, ‘동의’라는 절차가 있죠? 그것은 “나는 철수의 의견에 동의한다.”라고 할 때의 ‘동의’와는 다른 건가요?

선생님 : 아야! 우리 재호가 반장이 되더니 회의 절차부터 공부하는구나. 정말 기특한 걸! 그래, 재호가 알고 있는 대로 ‘동의’는 회의 절차 중의 하나야. 회의를 할 때, 예정에는 없었지만 회의에 부치고자 하는 의견이 생길 때가 있잖니. 이때 새롭게 의제를 내놓는 것이 바로 동의란다. 예정에 없던 새로운 의견이라는 것이 다를 뿐 그 뒤로는 보통 회의 절차와 똑같아. 그렇다면 동의의 뒤에는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 기억하니?

학생 : 동의 뒤에는 제정이 있어야 하잖아요.

선생님 : 오우! 기억하고 있었구나. 동의도 의견을 제안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제정합니다.” 혹은 “찬성합니다.”라고 해야 정식 의제로 채택되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절차들이 이어질 수 있을까?

학생 : 회의를 하는 도중에 의제에 대해 수정하거나 보완할 내용이 있다면 개의를 제안할 수 있고요, 그 개의에 대해 다시 수정, 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재개의를 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 와아, 재호가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을 한번 보고 싶은 걸. 참, 개의와 재개의를 제안할 때 주의할 사항도 기억하고 있었지?

학생 : 그럼요. 개의와 재개의를 할 때에는 다루던

의제를 수정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전혀 새로운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선생님 : 아아, 이젠 선생님이 더 가르쳐줄 게 없네. 하나만 더 이야기한다면, 회의를 진행하다가 필요에 따라서는 정회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도록 해. 정회는 회의 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여 회의를 계속 진행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잠시 회의를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학생 : 네, 선생님. 이젠 회의의 절차가 머릿속에 파악되는데요!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 : 재호가 반장으로 처음 회의를 진행하는 게 언제지? 다음 주 월요일이구나. 선생님이 한민 너희 교실에 들러 볼게. 멋진 회의 진행을 기대한다. 현재호, 파이팅!

4. [출제의도] 선생님과 학생의 대화를 듣고, 선생님의 말하기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선생님은 학생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학생 스스로 자신이 전에 배웠던 내용을 떠올리며 되짚어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생은 선생님의 질문을 받고 그에 대해 대답하는 과정을 통해 작년에 배웠던 회의 절차를 되짚어보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5. [출제의도] 제시된 대화 내용을 활용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대화를 통해 회의 절차인 동의, 제청, 개의, 재개의, 정회 등의 개념과 그 내용을 확인하고, 문제로 제시된 상황에 이를 적용해 보는 문제이다. 회의에서, 동의를 수정하는 것이 개의안이고, 이 개의안을 수정하는 것이 재개의인데, 이 둘은 모두 동의안의 내용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대화 속에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④는 동의안과 거리가 먼 내용으로, 또 다른 동의를 하고 있는 말이다.

6. [출제의도] 연상 및 발상을 통해 내용을 제대로 구성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연기와 음악의 조화’라는 ‘피겨 스케이팅의 체점 요소’에 착안하여 발표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을 구상한다면, 발표 전의 자료 수집과 관련된 내용이 적절하다. ③에서처럼 발표 내용을 급우들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것은 발표 내용을 모두 마친 뒤의 활동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구성이다.

7. [출제의도] 글쓰기의 개요 작성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이다.

④의 경우, ㉠이 상위 항목인 ‘친환경 에너지 개발의 장애 요소’와 내용 상 관련성이 없는 것은 맞지만, 서론의 내용은 ‘친환경 에너지의 개념 및 개발 현황’이어서 그 쪽으로 옮겨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은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개발 비용의 조달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으로 개발 현황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8. [출제의도] 글을 쓰기 위한 자료를 활용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이다.

제시된 네 가지의 자료들은 다문화 사회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현황을 보여준다. (가)는 OECD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선진화지수를 비교한 통계 자료이며, (나)는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보여주는 그래프 자료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들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 정도는 추론할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나라의 선진화에 미친 절대적인 영향으로 볼 수는 없다.

[오답풀이] ① 다문화 분야의 국가선진화지수를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여 보여 준다. ② 외국인 근로자로 인한 생산과 소비의 증가 양상을 보여 준다. ③ 외국인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제도적·사회적 차별을 보여 준다. ⑤ 두 자료는 각각 외국인에

대한 차별, 외국의 긍정적 사례를 담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에 대한 배려가 다른 나라에 비해 미흡하다는 사실을 이끌어 낼 수 있다.

9. [출제의도] 글을 바르게 고쳐 쓸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은 문맥상 주어와 호응하지 않으므로 ‘더해져야 한다.’로 고쳐야 한다.
[오답풀이] ① ‘주목(注目)’은 ‘눈을 한곳에 쏟음.’을 뜻하여 문맥에 맞지 않으므로 ‘세태나 남의 세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거머.’의 의미를 지닌 ‘편승’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10. [출제의도] 조건에 맞게 글쓰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묻는 문제이다.

광고의 전체적 내용을 보면 구조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더군다나 시각적인 자료를 생각하면 배마른 땅에 어린 짝이 힘겹게 나 있다. 이와 잘 어울리는 것은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심과 사랑을 건넨다는 것이 되겠다. 표현법과 관련하여서는 ‘배마른’과 ‘촉촉한’이 대조적 이미지에 해당하고, 이어 제시되어 있는 ‘단비’가 비유적 표현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①은 내용 상으로는 관련이 되고, 대조적 표현이 쓰였지만 조건을 모두 반영하지는 못하였다. ③ 내용 상으로 관련이 되고, 비유적인 표현도 있지만 대조적 이미지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④ 내용 상으로만 관련될 뿐 다른 조건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⑤ 내용 상으로 관련이 되고, 비유적 표현을 확인할 수 있지만, 대조적 이미지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11. [출제의도] 국어의 불규칙 활용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의 용례를 통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아/-어’를 붙여보는 것이 ‘ㅅ’ 불규칙 활용을 구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임을 알 수 있다. ‘셋다’의 어간에 ‘-어’를 붙여보면 ‘셋어[써서]’로 발음되므로 ‘ㅅ’이 탈락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셋다’는 불규칙 활용이 아니라 규칙 활용임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있다’, ‘굿다’, ‘붓다’, ‘짓다’는 각각 ‘이’, ‘그어’, ‘부어’, ‘지어’로 활용하여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ㅅ’이 탈락함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은 모두 ‘ㅅ’ 불규칙 용언임을 알 수 있다.

12. [출제의도] 어휘의 사전적 의미와 함축적 의미를 구별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⑤의 문맥에서 ‘이슬’은 ‘물체의 표면에 붙어 있는 작은 물방울’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으므로 사전적 의미로 쓰인 예가 된다.

[오답풀이] ①에서 ‘꽃’은 웃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므로 함축적 의미의 예이다. ②에서 ‘불’은 ‘사랑’의 보조관념으로 쓰였으므로 함축적 의미의 예이다. ③에서 ‘물들다’는 ‘사상·행실·버릇이 그와 같이 닮아가다.’라는 의미이므로 함축적 의미로 사용된 예이다. ④에서 ‘바람’은 ‘한계면에 밀어닥치는 이수선한 분위기나 소용돌이’를 뜻하므로 함축적 의미의 예이다.

[13~18] [시가 복합] (가) 김광섭, 「시인」, (나) 김종삼,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다) 이규보, 「시백」

13. [출제의도] 시어나 시상 전개 과정을 통해 시적 화자의 태도를 살펴보는 문제이다.

(가)는 사회적으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평생 사랑을 노래하는 시인으로서의 삶을 받아들이겠다는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다)는 평생 동안 괴롭게 시를 써 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시를 써 나갔다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작품이다. 따라서 (가)와 (다)는 ㉡에서처럼 시인으로서의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며 긍정하고 있는 태도를 살펴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대화체를 활용한 것은 (나)에서만 나

타난다. ③ 바람직한 세계에 대한 모습은 (나)에만 나타나 있다. ④ 과거 회상의 태도는 (가), (다)에서만 나타난다. ⑤ (가)~(다)에서 현재 상황을 극복해 보려는 태도는 나타나지 않는다.

14. [출제의도] 시인이 작품을 창작하면서 선택한 시어를 통해 화자의 정서나 감정을 살펴보는 문제이다.

①에서는 시인이 ‘사랑’과 ‘신앙’ 가운데서 ‘사랑’이라는 시어를 선택한 이유로, 인류에 대한 헌신을 바탕으로 시를 창작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의 전체적인 주제를 살펴볼 때, 화자는 세속적인 욕심을 멀리 하고 평생 ‘사랑’, ‘인생과 자연의 순리’ 등을 노래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따라서 시인이 ‘사랑’을 시어로 선택한 것은 시인으로서의 순수한 마음을 나타내려는 의도이지 인류에 대한 헌신의 태도는 아니다.

15. [출제의도] ‘시’의 본질을 대하는 화자의 태도를 통해 작품의 전반적인 주제 의식을 살펴보는 문제이다.

㉡을 통해 ‘시’에 대한 (가)와 (다)의 화자가 보이고 있는 태도를 살펴보는 문제이다. (가)는 인생과 자연의 섭리를 순수한 사랑과 정열로 노래하겠다는 의지를, (나)는 평생 괴롭게 써 온 시이지만 앞으로 계속 해서 써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에서처럼 (다)의 화자가 ‘시’를 사람들에게 교화시킬 수 있는 가르침으로 인식했다는 내용은 살펴볼 수 없다.

16. [출제의도] 시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를 통해 작품에 대한 올바른 감상 방법을 묻는 문제이다.

(나)의 화자는 ‘누군가’의 시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생각하며 고통스럽지만 착하고 인정있게 사는 사람들의 고귀한 가치를 인식한다. 이 때 ㉡은 일상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으로서, ‘나’에게 시인으로서의 삶을 성찰하게 되는 공간이다. 따라서 ㉢에서처럼 ㉡을 이동하며 ㉢의 물음에 대해 반감을 가지게 된다는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

17. [출제의도] 작품에 활용된 표현상의 특징을 통해 작품의 표현 기교나 주제 의식을 형성하는 과정을 묻는 문제이다.

(다)에서는 시를 쓰는 일이 고통스럽지만 버릴 수 없다는 시적 화자의 태도를 살펴볼 수 있다. 화자는 ‘귀뚜라미’, ‘술개’ 등을 통해 시를 쓰는 자신의 모습과 마음을, 또한 ‘뽕’, ‘살’ 등을 통해 시를 쓰는 고통을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8. [출제의도] 시어에 담긴 의미를 추리하여 화자의 대상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는 문제이다.

(다)의 화자는 나이가 늙거나 지위가 높아지면 시를 쓰는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해서 시를 쓰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 마지막 행의 ‘병’은 시를 쓰는 일을 즐거워하여 시를 그만두지 못하고 평생 동안 써 오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병’은 ㉡에서처럼 대상에 대한 애정이나 집착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19~22] [사회] 김훈철, 「공짜 마케팅」

19. [출제의도] 정보의 핵심적 내용을 파악하여 대비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A]는 균형이론을 통해 공짜 마케팅의 대상이 되는 소비자들 어떤 심리적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B]는 경제학적으로 접근하여 한계 비용과 관련된 공짜 마케팅을 경영 전략적 차원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 있다.

20. [출제의도]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는 지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공짜 마케팅의

기본적인 원리와 특성들을 담고 있는 예이다. 이에 따르면 결국 공짜 마케팅도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보다 과도하게 실시하면 기업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21. [출제의도] 단어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글쓴이는 ‘공짜라면 양껏물도 마신다.’라는 말에 대해 익살 섞어 과장되게 표현한 말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문맥을 통해 볼 때, ㉠은 우스갯소리에 가장 가깝다. ‘원소리’는 ‘터무니없이 자랑으로 떠벌리는 말’, ‘불넌소리’는 ‘성이 나거나 서운해서 통명스럽게 하는 말투’를 의미하는 말이다.

22. [출제의도] 그래프를 통하여 글에서 설명한 개념을 해석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제시된 그래프에서 ㉡, ㉢, ㉣, ㉤은 총비용이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생산량이 증가할 때마다 증가되는 한계 비용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문의 내용을 고려할 때 한계 비용이 0에 가까워 총비용의 증가가 미미한 ㉣가 공짜 마케팅을 실시하기에 가장 적절한 구간이라고 할 수 있다.

[23~26] [고전소설] 작가 미상, 「토끼전」

23. [출제의도] 소설의 서사 구조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에서는 작품의 서사적 요소를 도식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가)는 토끼가 수중 세계에서 벗어나는 부분, (나)는 육지에서 수리로부터 벗어나는 부분이다. 이 두 부분은 병렬적으로 연결되고 있을 뿐,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연결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풀이】** ① (가)는 수중에서 토끼가 위기를 극복하는 내용이다. ② (나)에서는 토끼가 의사 주머니를 활용하여 위기에서 벗어나는 내용이 중심을 이룬다. ④ ㉢와 ㉤에서 토끼는 피로 위기를 벗어나고 있다. ⑤ 토끼는 강자인 용왕, 수리와의 대립적 상황에서 승리를 거두고 있다.

24. [출제의도] 대사에 숨은 인물의 심리를 추리하는 문제이다.

㉠은 수궁에서 벗어나기 위해 용왕에게 속마음을 숨기고 좋은 말로 아부하고 있는 토끼의 말이다. 토끼는 자신의 간이 육지에 있다는 말로 위기에서 거의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그러므로 ㉠에 이어질 수 있는 방백으로는 용왕이 자신의 폐에 속아 넘어갔다는 것을 기뻐하는 내용이 제시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토끼가 자라에 대해 동정하는 모습을 발견하기 어렵다. ② 토끼는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고 있다. ④ 가볍고 경솔한 토끼의 성격과 맞지 않는 말이다. ⑤ 토끼는 위험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지, 상황을 즐기려 하고 있지는 않다.

25. [출제의도] 다른 판본과의 차이점을 비교하는 문제이다.

<보기>는 제시된 지문의 [A]에 해당하는 다른 판본의 장면이다. [A]에는 토끼가 수중 세계를 빠져나와 육지로 돌아오고, 토끼를 놓친 자라는 수중 세계로 돌아갔다는 단순한 내용이 제시되었다. 반면 <보기>에는 암토끼가 등장하여 자라를 질책하는 내용, 자라와 용왕의 후일담 등이 제시되어 있다. ‘거북’은 용왕의 명을 받아 자결한 토끼의 일을 알아 보는 역할만 하고 있으므로, 사건 전환의 가능성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26. [출제의도] 상황에 맞는 한자성어를 추리하는 문제이다.

[B]에서 토끼는 자신을 붙잡은 수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수리에게 단կ한 말을 하고 있다. 수리는 피가 많은 토끼에 대해 경계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므로, ㉠의 뒤에서 자신을 속이려 해도 소용없다는 말을 한 것이다. 이런 문맥을 고려할 때 ㉡에 들어갈 한자성어로 적절한 것은 ‘감언이설(甘言利說)’이다. 그 뜻은 ‘남의 비위에 맞도록 꾸민 달콤한 말과 이로운 조건을 내세워 꾀는 말’이다.

【오답풀이】 ② ‘일정한 견식이 없이 남의 의견에 따라 같이 행동함’을 의미한다. ③ ‘예사로운 말 속에 단단한 속뜻이 들어 있음’을 나타낸다. ④ ‘자기가 그린 그림을 스스로 칭찬한다’는 뜻으로, 자기가 한 일을 자기 스스로 자랑함을 나타낸다. ⑤ ‘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림’을 비유적으로 의미한다.

[27~30] [기술] 동아시아인식, 「중력을 이기고 하늘을 이다」

27. [출제의도] 문단의 중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에서는 지붕의 무게에 비례하는 중력이 보에 가해지면 보에 인장력과 압축력이 생성되어 작용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인장력이 보를 부러뜨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정보도 제시하고 있다. 즉 보에 작용하는 여러 힘을 소개하고 그 힘이 초래되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풀이】 ① (가)는 벽돌로 바닥, 벽, 지붕을 만들고 그것을 격파하는 상황을 제시해 지붕이 바닥, 벽 등에 비해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③ (다)는 그리스 신전의 예를 들어 보에 가해지는 힘의 구조적 안전성을 높이는 건축 방식의 원리와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④ (나)는 로마 시대에 발전된 아치 구조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⑤ (마)는 철근 콘크리트 공법의 개발로 평지붕이 보편적으로 사용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28. [출제의도] 정보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는 기둥과 보에 맞닿아 있는 부분으로 오더이다. 오더는 장식을 가미해 기둥의 끝자락을 넓혀 놓은 부분으로 구조적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이다. 기둥의 끝자락을 넓혀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인 공간을 좁힘으로써 보에 가해지는 힘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오더의 기능에 대해 기둥이 지붕의 무게에 비례해서 커지는 중력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해 준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더가 있어도 기둥에는 지붕의 무게에 비례해 중력의 힘이 가해진다.

【오답풀이】 ① 박공형 지붕에서는 중력이 양쪽의 경사면을 따라 흘러내린다. ③ 보에 가해지는 힘은 공간 길이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공간을 넓히면 보에 가해지는 힘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④ 아치 구조에서는 중력이 아치 구조를 따라 바닥으로 흘러내린다. ⑤ 아치 구조에서는 수직 방향으로 가해지는 힘이 사선 방향으로 바뀌기 때문에 축력이 없으면 벌어지려는 힘에 의해 무너지게 된다.

29. [출제의도] 정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해 이유를 추론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평지붕이 보편화되기 이전에는 주로 경사지붕이만 들어졌다. 구조적으로 평지붕을 버틸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철근 콘크리트 공법이 개발되면서 평지붕 시대가 만개했다. 철근을 묻은 콘크리트로 중력, 인장력, 압축력 등 구조물에 가해지는 힘을 버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평지붕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평지붕으로 이루어진 층을 겹겹이 쌓아 고층 건물을 만들 수 있으며, 박공형 지붕 외에도 여러 형태의 지붕을 만들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30. [출제의도] 다의어의 문맥적 의미를 구별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는 건물이 크게 지붕, 벽, 바닥의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ㄱ이다. 식당의 좌석이 흡연석과 금연석으로 구분된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는 ‘분할되다’, ‘분산되다’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은 ㄴ이다. 병력이 여러 지역으로 분산되었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오답풀이】 ㄴ은 ‘나뉘셈을 하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ㄷ은 ‘분배되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분배와 분산은 그 의미가 다르다.

[31~34] [현대소설] 윤홍길, 「날개 또는 수갑」

31. [출제의도] 소설의 서술 시점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이다.

이 소설은 3인칭 전지적 시점으로 작품 밖의 전지적인 서술자가 사건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앞부분에서는 대화와 행동을 위주로 사건을 극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뒷부분에서는 인물의 내면 심리를 ‘말하기의 방식’을 사용하여 제시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1인칭 주인공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② 1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③ 서술 시점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말인데, 이 부분에서 서술 시점의 변화를 확인할 수 없다. ③ 3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32. [출제의도] 소설의 제목이 지니고 있는 상징적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을 묻는 문제이다.

제목 작용과 관련하여 민도식을 비롯한 많은 사원들은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회사의 강요에 의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목 작용을 받아들인다. 이를 통해 제목이 속박을, 수갑이 그것에서 자유롭고자 하는 바람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징성을 지닌 제목이 ‘날개 또는 수갑’이란 제목이다.

33. [출제의도] 작품과 관련한 다른 작품을 연결하여 감상하는 능력을 묻는 문제이다.

㉡의 ‘영속도에서 날아오르는 새떼들’은 우리들이 영화관에서 부러운 눈으로 보고 있는 대상이므로, 이 모습을 보며 원하지도 않은 제목을 입기 위해 치수를 재고 있는 회사원들의 모습을 연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4. [출제의도]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는 인물의 의도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의 경우, 개성에 맞는 옷을 입을 권리를 포기할 때에는 보상이 따라야 하는데, K직물은 기업 정신이 훌륭하다는 점이 그 보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이 말은 자기가 다니는 회사는 그런 회사가 못 된다는 의사 표현이기도 하다. 결국 우기환의 이 말은 제목을 입지 않겠다는 주장으로 보아야 한다.

[35~38] [예술] 엘리스테어 던컨, 「아르누보」

35. [출제의도] 글의 내용과 서술상 특징을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지문을 통해 아르누보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유행한 예술 양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뿐, 그것이 예술 이외의 분야로까지 확산되었다는 정보를 확인할 수는 없다.

【오답풀이】 ① 1문단에서 화제인 아르누보의 탄생 배경을 설명하면서 글을 시작하고 있다. ② 2문단과 3문단에서 각각 아르누보라는 명칭의 유래와 예술적 경향을 설명하고 있다. ③ 4문단에서 아르누보의 대표적인 사례로 안토니오 가우디의 <카사 바트요>를

들고 있다. ④ 마지막 문단에서 아르누보는 합리성을 중시했던 근대 사회의 특성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쇠퇴했음을 언급하고 있다.

36.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아르누보는 19세기 말의 예술가들이 조악한 공예품이 대량생산되면서 대중과 유리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시작한 예술 운동으로, 자연에서 느낀 미적 감수성이나 자연에서 착안한 곡선을 디자인의 원천으로 삼았다. 따라서 아르누보는 수작업을 통해 자연에서 얻은 영감을 예술적으로 승화시켜 대중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예술을 지향했음을 알 수 있다.

37. [출제의도] 새롭게 제시된 자료와 지문의 내용을 연계하여 그 공통점을 추출하는 문제이다.

2문단과 3문단을 통해 아르누보가 산업화에 대한 비판 의식을 바탕으로 전통적 양식의 정형성을 탈피하여 자유로운 표현 방식을 구현한 예술 장르임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표현주의도 산업사회에 대한 반발이 전통적이고 정형적인 표현 방식을 거부하는 현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38. [출제의도] 한자어를 고유어로 적절하게 대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유리(遊離)’란 ‘다른 것과 멀리 떨어져 존재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대중과 유리된 상황이라는 것은 문맥상 대중들이 대량생산된 공예품을 좋아하게 되면서 대중과 예술가들의 심리적 거리가 멀어진 상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39~41] [회곡] 유치진, 「소」

39. [출제의도] 회곡의 장르적 특성을 파악하고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본문은 유치진의 회곡 「소」의 도입 부분으로, 배경과 등장인물들이 제시되고 있는 장면이다. 주인공 국서의 외양이 지시문을 통해 특징적으로 드러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속어를 통해 국서의 성격 또한 잘 드러나고 있다. 국서는 비속어의 사실적인 구사를 통해 투박스러운 농부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40. [출제의도] 제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작품의 의미를 이해하고 바르게 감상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보기>에는 유치진의 「소」와 관련해 작품의 창작 당시 농촌 사회의 실상 및 작품이 갖는 의의 등이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작품의 세부적인 내용이 지닌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소」가 작가의 냉철한 역사적 안목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인 것은 맞지만, 적극적으로 농촌을 떠나려는 개몽이의 모습이 작가 의식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답풀이] ① 개몽이가 돈을 벌기 위해 만주로 가려는 것은 우리 농촌에서는 물질적인 축적을 이루기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② 말뚝이는 농사일을 강요하는 아버지를 피해 숨어 있는 것이므로, 농사의 가치만을 중요시하는 아버지의 관습적 사고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③ 풍년이 왔는데도 먹을 것이 남아 있지 않을 것이라는 말뚝이의 대사는 당시 농촌 사회를 휩박하는 모순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⑤ 말뚝이, 개몽이 등의 이름과 비속어를 낱말하며 투박하게 행동하는 국서의 태도 등은 이 작품의 회곡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41.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을 참고하여 적절한 지시문을 고를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적절한 지시문을 고르기 위해서는 작품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제시된 장면은 추수 때가 된 농촌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농사일을 도와 주지

않는 자식들에게 악담을 하고 있는 국서와, 농사일에 는 애정을 보이지 않는 두 아들의 태도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은 집으로 찾아온 이웃 사람에게 술을 권하는 상황에 맞아야 하는데, 국서가 귀찮다는 듯이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2~44] [언어] 박영준, 「향찰은 왜 사라졌을까」

42. [출제의도] 글에 제시된 정보를 사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향찰은 고려 시대에도 사용되었던 것을 제시된 지문의 둘째, 셋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향찰이 고려 시대에는 쓰이지 않았다는 ①번의 진술은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②는 (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은 둘째~셋째 문단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는 넷째 문단에서 중국어의 특징을 설명한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는 다섯째 문단에서 일본어의 특징을 설명한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43. [출제의도] 향찰의 표기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구체적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향찰 표기법의 핵심 원리는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은 한자의 뜻을 빌려 적고,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토(조사, 어미)는 한자의 음을 빌려 적었다는 것이다. <보기>의 해독 부분을 통해 ‘결혼하고’의 의미를 지닌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얼어’의 경우, 실질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 실질적 의미는 어간인 ‘얼-’에만 나타난다. 따라서 ‘얼-’은 ‘嫁’의 뜻을 빌려 표기한 것이고,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어미 ‘-어’는 ‘양’ 또는 ‘어’로 읽을 수 있는 ‘良’의 음을 빌려 표기한 것이다. 따라서 ③번의 탐구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④에서 ‘두-’는 어간으로서 실질적 의미를 지닌 부분에 해당하므로 한자의 뜻을 빌려 표기한 것이다. ⑤에서 ‘-고’는 어미로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토에 해당하므로 한자의 음을 빌려 적은 것이다.

44. [출제의도] 도식화된 표를 통해 글에 제시된 정보를 추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도식화된 자료로 볼 때 이 문제는 향찰의 소멸과 관련된 우리말의 특성을 추론과정을 통해 찾아보라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음절의 수가 많다는 점, 초성, 중성, 종성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음절 구조를 지녔다는 점, 복수음절로 이루어진 단어가 많다는 점, 다양한 음소가 발달되어 있다는 점은 우리말을 향찰로 표기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임을 이 글의 넷째~다섯째 문단을 통해 알 수 있다. 하지만 토가 발달한 교착어라는 점(④)은 향찰의 소멸과 관련이 없다. 일본어도 토가 발달한 교착어이지만, 향찰과 유사한 표기법이 살아남았다는 데서 교착어의 언어 구조는 향찰 소멸의 원인과 관련이 없음을 추리할 수 있다.

[45~47] [인문] 이부영, 「페르소나는 버려야 하는가」

45. [출제의도] 글에 제시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자기실현은 인간의 본모습이 사회적 역할에서 벗어나 그 본성이 살아 숨 쉴 때 가능하다. 그러므로 자기실현을 위해서 페르소나와 본모습이 일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성으로서의 삶과 페르소나로서의 삶을 구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46. [출제의도] 주어진 정보를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철호와 영호가 살아가는 사회는 구성원들에게 양심, 윤리, 관습, 법률 등을 요구한다. 즉, 이러한 것들이 바로 그들이 속한 사회가 요구하는 페르소나라고 할 수 있다. 철호는 이러한 페르소나에 일치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영호는 그러한 삶을 거부하고 있다. 철호는 이러한 영호에게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페르소나를 요구하고 있으나, 동생으로서의 페르소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47.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자료를 해석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의 일화를 통해 디오게네스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책임이나 의무, 역할보다는 자유로운 삶을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사회가 요구하는 페르소나를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8~50] [과학] 뉴튼, 「소리의 파동과 악기의 세계」

48. [출제의도] 글의 핵심 내용을 파악해 표제와 부제를 정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소리가 발생하는 원리를 설명한 후, 악기 소리도 그와 마찬가지로의 원리로 생성된다고 한 후, 진동과 공명 현상을 중심으로 바이올린과 리코더가 어떻게 소리를 내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서는 일반 소음과 달리 악기 소리가 가진 특징을 복합음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악기 소리와 공명 현상의 관계는 지문에서 부분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목으로 적절하지 않다. 악기의 연주 과정을 중심으로 글을 서술했다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③ 악기 소리의 물리적 특성이 제시되어 있으나, 그 중요성을 특별하게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④ 악기 재료의 속성을 중심으로 글의 논지를 전개하고 있지 않다. ⑤ 악기 소리의 파동 형태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그 형태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49. [출제의도] 정보를 구체적인 대상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공명은 그네가 뒤로 끌려가 왔다가 나아가려는 순간에 그네를 밀었을 때 그네의 진폭이 커지듯이, 대상이 갖고 있는 고유진동수와 일치하는 진동수를 활용하여 진폭의 크기를 크게 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래서 공명이 된 소리는 기존의 음보다 진폭이 커진다. 하지만 ㉠에서는 ㉡가 ㉢에 비해 진동수가 작기 때문에 공명이 되어도 진폭이 작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진동수가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진동수만 일치하면 공명이 일어나 진동의 진폭을 넓힌다. 따라서 ㉢을 ㉡보다 진폭이 작은 소리로 파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오답풀이] ① 소리의 크기는 진동의 폭에 기인한다. ③ 악기 소리는 정수의 비로 이루어진 배음들의 조합이므로, ㉡의 1.5배의 진동수를 가진 배음은 악기 소리가 될 수 없다. ④ 악기 소리는 일정한 파형이 반복되지만, 소음은 그렇지 않다. ⑤ 배음의 세기는 음색을 결정한다.

50. [출제의도] 대상 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리코더에서 ‘관 속의 공기 기둥’은 공명이 일어나는 부분이다. 공기 기둥이 없다면 리코더는 소리를 낼 수 없다. 바이올린에서 공기 기둥처럼 공명이 일어나는 부분을 찾으면 몸통이다. 바이올린의 몸통은 활을 쳐서 얻는 진동음을 통해 악기 소리가 큰 소리로 퍼져나가도록 공명이 일어나는 부분이다. 이외에도 공기 기둥은 소리의 높낮이와도 관련이 깊다. 공기 기둥이 짧으면 진동수가 많은 소리가 나서 높은 소리가 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는 공기 기둥은 바이올린의 현과 유사하다. 현도 손가락으로 브리지 부근의 현을 눌러 현의 길이가 짧아지면 높은 소리가 난다.